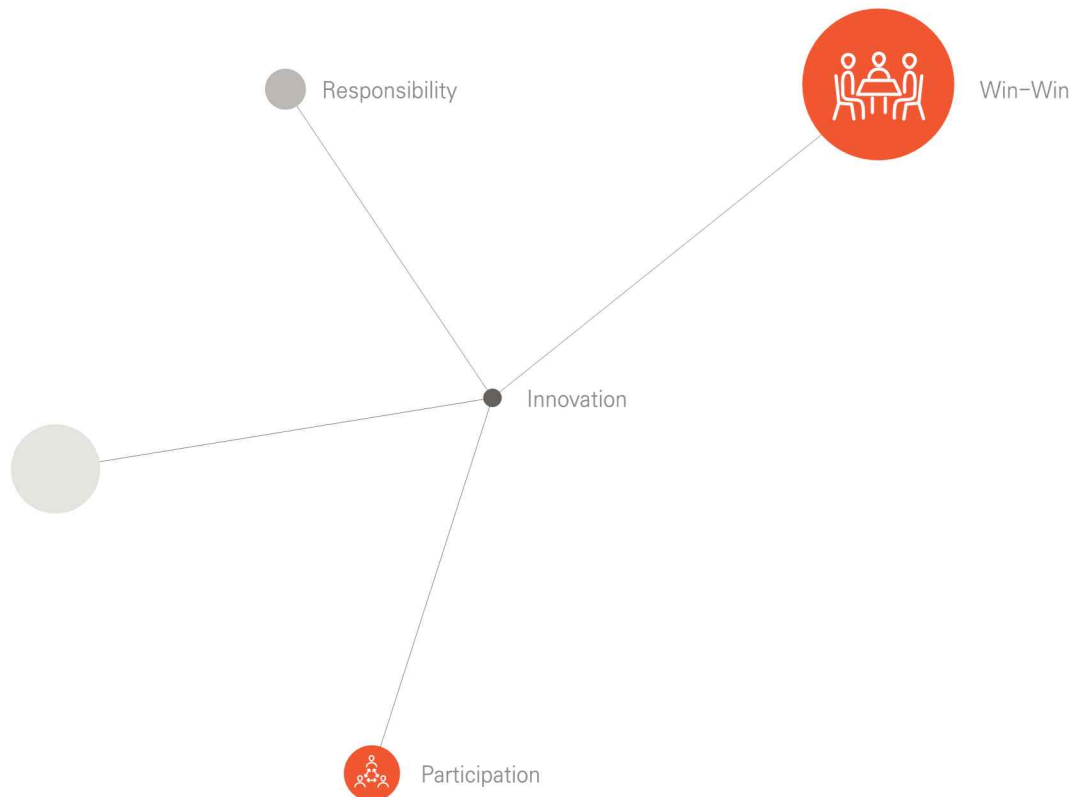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11월



목 차

1. 스페셜 이슈	3
2. 해외시장 동향	15
3. 국내시장 동향	24



1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스페셜 이슈



1. Skift Meetings: 국제회의 목적지 혁신 가이드

가. Skift Meetings

- 스킵트 미팅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여행업계 뉴스 사이트인 스킵트 사의 국제회의 분야 전문 브랜드로, 2007년 설립된 국제회의 전문 플랫폼 EventsMB를 스킵트 사가 2019년 인수한 이후 2022년 5월 국제회의 및 이벤트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리브랜딩을 진행, 스킵트 미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음
- 스킵트 사는 월 2회씩 여행업계 전문가들 및 애널리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뉴욕타임스, CNBC 등 유력 매체들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여행 트렌드 데이터 시트를 발표하고 연간 여행업계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제작하며, 매년 뉴욕에서 여행업계 트렌드에 대해 논하는 ‘스킵트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도 포럼을 확대 추진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스킵트 미팅은 스킵트 사의 이런 활동들 중에서 국제회의·행사 부문을 전담, 이벤트 트렌드 서밋, 이벤트 테크 혁신 서밋, 이벤트 전문가의 팟캐스트(인터넷 강연), 국제회의 및 이벤트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특이하게도 Cvent, MeetMatch 등 다양한 업체들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는 이벤트·스트리밍·네트워킹 플랫폼이나 판매자 소싱 도구(Vendor Sourcing Tool)를 소개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 국제회의 목적지 혁신 가이드(Innovative Destinations Guide 2022)¹⁾

- 스킵트 미팅에서 2022년 11월 공개한 ‘국제회의 목적지 혁신 가이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자 대부분의 비즈니스 여행자들은 다시 대면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대면 행사는 ‘기존과 다른 무언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참석자들에게 국제회의 목적지들은 원격으로 참석하는 편리함을 뛰어넘을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에 따라 기술혁신, 교통혁신, 포용성 강화, 로컬 콘텐츠 연계, 지속가능성이라는 5개 주제를 제시하고 세계 각국에서 주제에 알맞은 성공사례들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엔데믹 시기 국제회의 도시들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1) 본 고는 ‘Innovative Destinations Guide 2022’(Skift Meetings, 2022)를 참고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2) 주요내용 요약

- 국제회의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5개 주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주제들이 어찌서 혁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며 많은 국제회의 개최도시들이 해당 부문에서 혁신을 통해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스키프트 미팅이 설명한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스키프트 미팅: 혁신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 이유

연번	주제	주요 내용
1	기술혁신	인공지능, 5G, 생체인식 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도구를 활용한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행사가 지니고 있던 틀을 깨고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2	교통혁신	참가자들이 국제회의 및 이벤트 장소에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특색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효율 및 흥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포용성 강화	최근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EDI 트렌드의 한 축으로, 모든 참가자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4	로컬 콘텐츠 연계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특색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도시브랜드 강화, 지역상생 강화 효과를 창출
5	지속가능성	세계적으로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특색 있고 혁신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은 참석자들이 방문을 결정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

-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스키프트 미팅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음

<표 2> 주요 인사이트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주제	국가/지역	주요 내용	주제	국가/지역	주요 내용
기술 혁신	홍콩	보안방역안내 AI 로봇 활용	강화	에리조나	세계 최초 자폐환자 친화 인증 취득
	싱가포르	홀로그램 활용 하이브리드 행사 진행		스코틀랜드	심라정신 인정 키트 제공
	두바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메뉴 건축		미네소타	청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서비스 실시
	푸에르토리코	초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한 행사 진행	로컬 콘텐츠	요코하마	다도(茶道) 문화 프로그램
	샌디에이고	인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출입 및 구매		로스앤젤레스	참가자들과 지역 내 자선활동 실시
	몬트리올	생체신호 분석을 통한 전달성 파악		캐나다	행사 주제 관련 로컬 전문가 섭외 지원
교통 혁신	라스베이거스	지하터널과 전기차로 이동편의 강화	지속 가능성	푸에르토리코	지역 내 생산된 농수산물 활용
	뉴델리	컨벤션센터 인근 교통체계 강화		퀸즈타운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16종 지원
	토론토	대중교통 자유이용권(컨벤션패스) 발급		스코틀랜드	탄소자감을 위한 기류유기 비상산언 실시
	티롤	자전거를 이용한 참석 및 프로그램 운영		코펜하겐	메뉴별로 최적화된 친환경전략 도입
포용성	캔자스	심라감각 안정을 위한 공간 설치	에테보리	자재 배송횟수 최적화를 통한 탄소자감	
	푸에르토리코	성소수자(LGBTQ+) 인식 개선	리비아라 나이룻	분리수거 등 기본원칙 준수 유도	
	볼티모어	인종차별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캠페인	시드니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 장치 설치	
			에드먼턴	육류 없는 채식주의 케이터링 실시	

나. 주제별 사례

1) 기술 혁신(Next-Generation Technology : Putting New Tools To Work)

■ 주제 개요

- 빠르게 발전해오던 인공지능 및 5G 네트워크, 생체인식 기술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통해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제회의 및 이벤트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특히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행사를 보고 느끼는 방식을 탈바꿈하는 경우 참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국제회의 시장에서의 위치 경쟁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홍콩: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참가자 안전관리

- 홍콩전시컨벤션센터(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는 최근 캡틴 C(Captain C)라는 로봇을 도입했는데, 해당 로봇은 5G 통신망을 활용하는 스마트로봇으로 360도 4K 고해상도 감시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연기 감지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음
-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캡틴 C는 컨벤션센터 내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체적인 AI를 통해 행사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사항을 잘 준수하는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구역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지 등을 감지하고 참가자들에게 방역지침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대사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어 효율적인 행사장 방역관리 및 인원관리에 기여하고 있음
- 홍콩 전시컨벤션매니지먼트 유한회사(HML)의 디렉터 모니카 뮐러(Monica Muller)는 ‘홍콩 전시컨벤션센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억 2,8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단계적인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이룩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내 5G 데이터통신을 구축한 시설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데이터통신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캡틴 C와 같은 로봇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싱가포르: 홀로그램 기술의 접목을 통한 행사 몰입감 증대**

-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전시컨벤션 베뉴 중 하나인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는 홀로그램을 활용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개장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혁신적인 행사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되었음
- 행사의 연사가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행사장에 설치된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행사장에 실존하는 것처럼 등장(Hologram Telepresence)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홀로그램 참석자와 현장 참석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홀로그램으로 자리한 참석자 간의 대화도 가능해 행사 운영 효율화, 최첨단 디지털 경험 제공을 통한 참석자 만족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
- 또한 마리나베이샌즈는 연사를 행사장으로 불러내는 홀로그램 기술 외에 행사 기획자들을 위해 원격 참석자들이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최근 공개했는데, 행사 기획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행사 메뉴를 3D 기술로 복제하여 구현하면 원격 참석자가 해당 메뉴를 직접 방문하는 듯이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어 현장감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전망됨
- 마리나베이샌즈는 향후 증강현실(XR) 행사 솔루션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고 참가자들에게 더욱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해나갈 예정



[그림 1] 홀로그램 연사와 행사를 진행하는 장면

■ 몬트리올: 생체신호 기술을 접목한 참가자 반응 분석

- 캐나다 몬트리올의 대표적인 컨벤션센터인 팰리스 드 콩그레스 드 몬트리올(Palais des congrès de Montréal)는 'RE-AK 테크놀로지'와 협업을 통해 전시 참석자들의 감정 변화를 분석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RE-AK 테크놀로지는 컴퓨터, TV,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 경험 중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인식수준을 분석하는 전문 분석기관임
- 파일럿 프로그램은 전시 참가자들에게 뇌파, 심장박동, 인면근육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입힌 뒤 전시장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 결과 해당 기술은 참석자들의 동기부여, 자극에 대한 인식 수준, 긍정·부정적 반응 등을 분석하는 데에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뇌파 및 심장박동 등의 생체신호에서 나타나는 순간적인 반응들은 인간이 의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인위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아니라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가장 솔직한 반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향후 해당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전시 및 컨벤션 행사 등에서 참가자가 어떠한 행사, 어떠한 전시 참가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 교통 혁신(Transformative Transportation: Giving Attendees Better Ways)

■ 주제 개요

- 대부분의 행사 참석자들은 행사 개최지까지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이 시간을 지루하고 불편한 과정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도시들과는 차별화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개최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참가자들에게 여유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행사 일정 중이나 일정을 마치고 난 뒤 개최지 및 주변 지역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순환 전기차 노선(LVCC Loop) 도입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as Vegas Convention Center)는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와의 협업을 통해 컨벤션센터 지하를 순환하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루프(LVCC Loop)’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순환 전기차 노선은 현재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와 인접해 있는 숙소인 ‘리조트 월드’에서 시작해 컨벤션센터 서측 홀(LVCC West), 중앙 홀(LVCC Central), 남측 홀(LVCC South)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순환 전기차만을 위해 만들어진 지하 터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걸어서 25분이나 걸리던 서측 홀부터 중앙 홀까지의 거리를 단 2분만에 주회할 수 있어 행사 참석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순환 전기차 노선 운영 구간은 초기 약 1.7마일(2.73km) 수준으로 매우 짧았으나, 현재 라스베이거스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부터 중심가(Las Vegas Strip) 및 얼리전트 스타디움(Allegiant Stadium)까지 참석자들을 살어나를 수 있도록 시공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최대 30인까지 탑승 가능한 차량에서 향후 최대 120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



[그림 2]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루프(LVCC Loop) 운행 사진 및 노선도

■ 토론토: 컨벤션 대중교통 자유이용권(Convention Pass) 발급

- 캐나다 최대의 도시 중 하나인 토론토는 컨퍼런스나 트레이드쇼, 컨벤션 등 주요 행사의 기획자 및 참석자들에게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패스(Convention Pass)’를 저렴한 가격에 발급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컨벤션패스를 소지할 경우 시내의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교통체증이 심한 토론토 다운타운의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편리한 데다가, 컨벤션패스 카드에 기업의 로고나 행사 포스터를 인쇄하는 등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행사 또는 기업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토론토 시 입장에서는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던 참가자들이 컨벤션패스로 인해 대중교통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 및 교통체증 완화 등의 효과가 발생, 행사 참가자 및 토론토 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형태의 결과를 유도하고 있음

3) 포용성 강화(Inclusivity: Shaping a More Welcoming Environment)

■ 주제 개요

- 포용성은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인 DEI - 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Inclusion(포용성) - 의 한 축으로, 조직 등에서 자신의 '다름'을 존중받고 누구나 포용 가능한 조직 및 사회를 구축하자는 의견임
- 이러한 의견은 MICE 업계에서도 반영되고 있으며, 적절한 전략 및 계획을 통해 국제회의 및 전시 등을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좀 더 포용적이고 개개인 모두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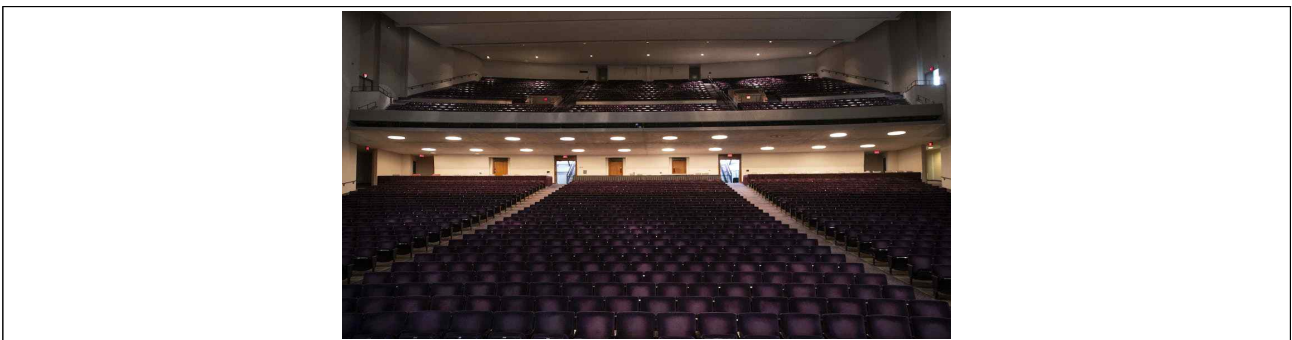
■ 캔자스시티: 신경다양성 참석자 전용 휴식공간 설치

- 컨벤션 및 국제회의 등 행사 현장에는 참석자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 번쩍이는 여러 스크린 화면, 사람들로 꽉 들어찬 공간 등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환경은 신경다양성을 지닌 이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음
 - '신경다양성(Neurodiverse)'은 인간의 발달 과정 중 '전형적'이라고 여겨지는 양상과 형태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적, 심리적, 신경적 특성을 뜻하는 말로(마인드포스트, 2022) 자폐증, ADHD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다름'을 다양성으로 수용하고 비장애의 범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 및 운동이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캔자스시티의 오버랜드 파크 컨벤션센터(Overland Park Convention Center)는 국제회의 및 행사 등의 환경이 신경다양증 참석자에게 심리적·정신적 압박감을 형성하고 강한 잠재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신경다양성 참석자 전용 휴식공간인 ‘감각의 방(Sensory Room)’을 컨벤션센터 내부에 설치하였음
- 해당 휴식공간은 의학 전문가들의 제안 및 자문 하에 조성되었으며, 신경다양증 참가자가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대형 쿠션(Been Bags), 심리적 안정감을 유발하는 LED 패널, 지속적으로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수족관(Bubble Wall) 등을 설치하고 자폐증을 지닌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해 두어 참석자가 빠르게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미네소타: 청각장애인 접근성(Accessibility) 개선 서비스 제공

- 최근 물리적 장애를 지닌 이들을 위한 휠체어/전동휠체어 대여 서비스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의 컨벤션센터(뉴욕 자비츠센터, 런던 엑셀런던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
- 한편 미네소타 주의 DECC(Duluth Entertainment Convention Center)의 경우 세계에서 몇 안되는 ‘청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벤션 센터로, 심포니 홀에서는 청력 보조 장치 및 전자기 유도 루프(청각 신호를 청각장애인에게 전파로 직접 전달하여 청각기관 장애가 있더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을 통해 아무런 잡음 없이 청각 장애인도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
- 뿐만 아니라 DECC는 미국 수화 통역사(American sign language interpreter)를 보유하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은 심포니 홀 외의 공간에서도 항상 주변의 상황이나 대화 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사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오디오 서비스까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3] 청각장애인도 강연 및 연주를 들을 수 있는 DECC의 심포니 홀 전경

4) 로컬 콘텐츠 연계(Offering Authentic Programming)

■ 주제 개요

- 트립어드바이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여행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몰입할 수 있는 경험들을 즐기는 것은 여행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여가를 즐기기 위한 여행자들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 방문하는 B2B 여행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비즈니스 여행자들 역시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도시의 유니크한 사회공헌활동 경험이나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즐길 시 참석자들은 현지 문화와 더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향후 관광·MICE 활동을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시료되기 때문에 MICE 산업과 로컬 콘텐츠를 연계한 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요코하마: 다도(茶道) 문화 프로그램

- 요코하마 CVB는 MICE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다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MICE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음
- 해당 다도 문화 프로그램의 특징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202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1,400년 전통의 일본식 다도 문화와 지역 내에서 생산한 고급 차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쉽게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는 조립식 목제 시설물을 행사장에 배치하여 행사 쉬는 시간 동안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점임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코하마 CVB는 지역 특산물의 장점을 비즈니스 여행자들에게 홍보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조립식 목제 시설물은 여러 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행사장 부스와 같이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지속가능성 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본식 조립 시설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 퀸즈타운: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 16종 운영

- 뉴질랜드 퀸즈타운의 경우 행사 참가자들에게 인상적인 경험을 심어주고 도시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퀸즈타운 커넥션 프로그램(Queenstown Connec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퀸스타운 커넥션 프로그램은 총 16종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기부, 후원, 자원 봉사 등 2-3개의 선택지를 제공하여 MICE 행사 참가자들이 일정 등을 고려해 참석하기 쉽도록 유도하고 있음
-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지역 내 최대 호수 중 하나인 ‘와카티푸’의 이름을 딴 ‘와카티푸 야생환경 보호 기금 기부’, 지역 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기며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퀸스타운 마운틴 바이크 클럽’ 참가, 와카티푸 호수 인근 녹지를 복원하는 ‘와카티푸 녹지화 기금 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산악구조대 체험 및 봉사, 퀸스타운 알파인 스키 체험, 지역사회 어린이 지정후원 신청 등 퀸스타운과 참가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환경·경제적으로 이로운 활동들이 다수 구성되어 있음



[그림 4] 퀸스타운 와카티푸 녹지화 기금 식목 봉사 현장

5) 지속가능성 강화(Putting the Planet First)

■ 주제 개요

-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높아진 상태이며, 전염병 이외에도 홍수, 가뭄, 산불 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다수의 컨벤션센터들은 태양전지 패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단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MICE 행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노력들 이외에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컨벤션센터 및 도시들이 존재하며, 해당 도시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행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이미지를 상쇄하고 참가자들이 방문에 있어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음

■ 예테보리: 물류 일정 조정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스웨덴의 예테보리는 지난 5년 간 ‘글로벌 지속가능성 도시 활동 지표(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Movement Index)’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을 정도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도시임
- 특히 예테보리에 입지해 있는 스웨덴 전시콩그레스센터(Swedish Exhibition and Congress Center)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를 위하여 컨벤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각종 용품들의 물류 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타임테이블을 구상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납품 차량이 컨벤션센터를 방문하는 빈도 수를 절반 가량 감축하는 데에 성공하였음
- 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운송수단이나 물류 운송을 위한 해운 등의 경우에는 모두 기후보상(climate-compensated) 제도를 실시, 해당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환경친화 탄소절감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에드먼턴: 육류 없는 식단 운영

- 육식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곡물이 소요되며, 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십 kg의 탄소를 배출해야 할 정도로 육식은 환경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채식주의, 비건 식단을 고수하는 사람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드먼턴 컨벤션센터는 식사 옵션으로 육류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100% 비건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두부, 브로콜리, 비트 등 순수 야채로만 구성된 식단을 제공했고, 이 식단은 탄소배출량 저감을 통한 환경오염 완화 및 참석자 건강 증진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유발하였음



[그림 5] 에드먼턴 컨벤션센터의 100% 비건 식단 홍보물



2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해외시장 동향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7차 G20 정상회의 11월 14~15일 양일간 개최

-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투아 지역 아푸르바 켐핀스키(Apurva Kempinski) 호텔에서 '제 17차 G20 정상회의'를 11월 14-15일 양일간 개최함
- 해당 행사에는 G20 회원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외에도 네덜란드,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등이 초대손님의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세계은행, OECD, WTO, WHO, FIFA 등 세계 경제 및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여하였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및 서방의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성장세 억제, 인플레이션 확대, 물류 공급망 교란, 에너지 및 식량 불안 고조, 금융 위협 증대 등 세계경제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조치 및 경제 회복을 중심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짐
 -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촉진 및 탄소저감에 관련한 의견 교류 끝에 G7 국가들과 EU, 덴마크 및 노르웨이 등은 '인도네시아 공정에너지전환 파트너십(Indonesia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을 체결하고 석탄화력발전 중심인 인도네시아의 탈탄소화 유도를 위해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4,000억 원)를 지원해 주기로 합의하였음



[그림 6]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현장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 진행**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 KLCC)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말레이시아를 지속 가능한 MICE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는 ‘12번째 말레이시아 계획(Twelfth Malaysia Plan)’을 추진 중으로, 향후 비즈니스 행사 개최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국가 및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현황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는 음식물 처리기계(Food Composter Machine)에 투자를 진행해 컨벤션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30%를 감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선호에 기반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로 재활용하여 인근 공원에 공급
- 한편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는 ‘2022 말레이시아 도심 포럼(Malaysia Urban Forum 2022)’에 참여하여 센터의 지속 가능한 목표에 대해 발표하고 센터 종업원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선형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재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그림 7]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의 음식물 처리기계

■ 싱가포르: 지속 가능한 MICE 발전을 위한 ‘MICE 지속 가능성 로드맵’ 발표

- 싱가포르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 STB)과 싱가포르 컨벤션·전시 주최자·공급자 협회(SACEOS)는 MICE 업계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MICE 지속가능성 로드맵(MICE Sustainability Roadmap)을 발표함
- MICE 지속가능성 로드맵(MICE Sustainability Roadmap)은 싱가포르 그린 플랜 2030(Singapore Green Plan 2030)과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로드맵에서는 싱가포르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MICE 목적지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 첫 번째, 2023년까지 업계가 손쉽게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2024년까지 국제 인증 지표로 등록할 계획
 - 두 번째, 2025년까지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6개의 신규 MICE 메뉴를 건설하고 싱가포르 컨벤션·전시 주최자·공급자 협회(SACEOS) 회원의 80%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속가능성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세 번째, 2030년까지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여 ‘탄소배출량 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 한편 싱가포르관광청(STB)과 싱가포르 컨벤션·전시 주최자·공급자 협회(SACEOS)는 업계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해 2022년 8월 MICE 지속가능성 위원회(MICE Sustainability Committee, MSComm)를 설립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MICE 업계의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바 있음



[그림 8] 싱가포르 MICE 지속가능성 로드맵 인포그래픽

나. 미주 지역

■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호텔경험 전시회 및 부티크디자인 전시회 동반 개최

- 뉴욕 자비츠센터, 부티크디자인 전시회(BDNY: Boutique Design New York)와 호텔경험 전시회(HX: The Hotel Experience)를 11월 13~14일 양일간 동반 개최하였음
 - BDNY는 호텔 전반에 걸친 모든 디자인 관련 물품·기술·서비스 판매가 이루어지는 행사로 내부 가구 및 인테리어부터 전체적인 건축, 호텔리어 등 다양한 범주를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HX는 호텔산업 전반에 있어 고객들의 경험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업계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판매가 이루어지는 행사임
- 이번 BDNY 전시회에서는 총 47개국에서 575개 업체가 참여해 13,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유치하는 등 2021년에 비해 총 참석자 수 65% 증가, 인증된 바이어 참석자 수 61% 증가, 전시업체 47% 증가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계약실적은 2021년 대비 737%, 2019년 대비 247% 증가해 지난 두 회차를 합친 것보다도 큰 수준이었음
- BDNY 전시회에서는 기업별 부스 말고도 ‘2022 상품디자인 경진대회(2022 Product Design Competition)’, ‘2022 최고의 전시(2022 Best Exhibit Competition)’ 등의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디자인 투어 프로그램, 킥오프 파티, 지속가능성 관련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음
- 한편 함께 진행된 HX 전시회에는 총 8개국에서 호텔산업 관련 업체 62개사가 참여해 2,400명 가량의 참가자를 유치하였으며, 매일 전시를 진행함과 동시에 중앙 무대에서는 호텔업계 내 조직문화, 고객경험 강화를 위한 상호작용형 문화공간 조성, 현대산업에서의 브랜딩 강화 방안 등 업계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강연을 진행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인기를 얻었음



[그림 9] BDNY 2022 행사장 전경

다. 구주 지역

■ 독일: 첨단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 2022’, 뒤셀도르프에서 11월 14~17일 개최

- 독일 뒤셀도르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의료기기 전시회 중 하나인 ‘메디카(MEDICA)’를 메세 뒤셀도르프에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간 개최하였음
- 올해로 제54회를 맞이하여 개최된 해당 전시는 국제 첨단의료부품 산업전시회인 컴파메드(COMPAMED)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총 150개국에서 5,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석, 총 15만 명 이상의 방문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체외 진단기기, 의료 인공지능(AI), 재생치료, 영상장비, 미용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었음
- 한편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되었는데,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스타트업 파크’를 포함하여 ‘MEDICA DISRUPT’, ‘제11회 메디카 스타트업 경진대회’, ‘제14회 헬스케어 혁신 월드컵’, ‘메디카 커넥티드 헬스케어 포럼’ 등 산업계를 위한 행사 다수가 잇따르며 약 100여 개의 기업 및 12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였음
- 뿐만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컨퍼런스도 개최되었는데, 4일 간의 행사 기간 중 총 7개의 포럼과 3개의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으며 각각 ‘메디카 헬스 IT 포럼’, ‘테크포럼’, ‘ECON 포럼’, 독일병원 컨퍼런스, 스포츠의학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음



[그림 10] 메디카(MEDICA) 2022 행사 현장

■ 독일 국제 밸브 전시회(Valve World Expo 2022),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뒤셀도르프에서 개최

- 독일 뒤셀도르프, 세계 최대 규모의 B2B 밸브 무역전시회인 ‘국제 밸브 전시회(Valve World Expo 2022)’를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뒤셀도르프 페어그라운드에서 개최
- 국제 밸브 전시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되는데, 2018년 40개국 722개사가 참가하고 89개국 1만 2,420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을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온라인으로만 이번 전시회는 4년 만의 정식 개최임
- 밸브 기술은 오일/가스, 화학, 식품, 공업, 의료 등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뿌리 기술 중 하나로, 이번 전시회는 밸브, 밸브 부속품, 포지셔너, 펌프, 컴프레서 등 밸브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행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의 수요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행사에는 29개국에서 388개사가 전시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약 80여개국의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방문하였고, 참석자들 중 79%가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자(Decision-Maker)’ 수준의 직급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업체와 참석자 간의 유의한 수준의 상담이 다수 이루어짐
- 뿐만 아니라 해당 전시회에서는 국제 밸브 컨퍼런스도 함께 개최되었는데, 원유 및 가스 부문 전문 밸브 회사인 KCI의 주최로 약 70여 개의 강연과 세미나, 워크숍 등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그림 11] 국제 밸브 전시회(Valve World Expo 2022) 행사 현장

■ 스페인: 2022 관광 혁신 정상회담(TIS) 개최

- 스페인 세비아에서 2022 관광 혁신 정상회담(Tourism Innovation Summit 2022, TIS 2022)가 개최됨
 - 2022 관광 혁신 정상회담(TIS 2022)에서는 트래블테크 스타트업 경쟁 대회(Touristech Startup Fest entrepreneurship competition)가 진행됨
 - 트래블테크 스타트업 경쟁 대회(Touristech Startup Fest entrepreneurship competition)는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들이 여행 및 관광산업의 혁신과 추진을 위해 관광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사업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 자리임
- 트래블 테크 스타트업 경쟁 대회(Touristech Startup Fest entrepreneurship competition)에는 총 4,000개의 관광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이 중 40개의 스타트업이 이번 2022 관광 혁신 정상회담(TIS 2022)에 참여하여 11개의 스타트업이 최종 수상함
 - 40개의 스타트업들은 관광 유통 채널, 목적지, 환대, 모빌리티 및 여행, 액티비티 및 레저, MICE 등의 분야로 구분되었음
 - 노이트럴(Noytrail)은 호텔과 투숙객이 얼마나 많은 물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투숙객 소비 추적 서비스로 WTTC 상을 수상받았으며 투숙객의 물과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객실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터보스위트(Turbosuite)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숙박 가격을 예측하고 숙박을 맞춤화할 수 있는 독특한 알고리즘을 제공함
- 이번 대회를 통해 소개된 4,000개의 관광 스타트업은 이미 관광 스타트업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향후 관광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12] 2022 관광 혁신 정상회담(TIS 2022) 현장 사진

■ 런던: 2022 세계 관광 마켓(World Travel Market) 개최

- 런던에서 2022 세계 관광마켓(World Travel Market, WTM)이 개최됨
 - 이번 2022 세계 관광마켓에서는 관광 전문가를 포함한 35,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며 2021년보다 두 배 이상의 참석자 수를 기록했으며, 방문 국가 수는 15%, 전시 인원은 165%, 미디어 참석자 수는 약 1,5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특히 이번 2022 WTM 런던의 주요 참석자는 실제 구매력이 있는 글로벌 여행 구매자로, 올해 참가자 중 실제 구매자의 비율이 2021년 대비 25% 증가해 행사 자체가 지닌 영향력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 이는 세계 관광마켓 주최 측이 구매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구매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바이어 클럽 라운지 제공, 패스트트랙 입국, 컨시어지 미팅 서비스 제공, 이벤트 어플리케이션 내 통합 다이어리 기능 제공 등을 통해 행사 중 구매자들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편 세계 관광 마켓(WTM)은 런던에서 여행업 관계자와 구매자들 간의 교류와 판매, 홍보 등을 위해 시작되었고 현재 런던·중남미·아프리카 등을 돌며 개최되고 있으며 여행 업계의 단순한 거래와 상담을 위한 행사가 아닌 관광과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의 장으로 세계 여행 시장 이슈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국제적 행사임



[그림 13] 2022 세계 관광 마켓(WTM London)의 모습



3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국내시장 동향

3. 국내시장 동향

■ 디노마드-갤럭시코퍼레이션, '메타버스 기반 MICE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디노마드-갤럭시코퍼레이션, 11월 29일 메타버스를 활용한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
 - 디노마드는 '2021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서울디자인위크 리부트', '2021 커피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오프라인 및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 바 있는 AI 기반의 MICE 및 콘텐츠 전문기업이며,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갤럭시 IP'라는 연예인 메타버스 '부캐' 만들기, 메타버스 TV 예능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메타버스 아바타 포털기업임
-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IP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및 MICE 플랫폼을 제작하고 콘텐츠 제작 노하우 공유, 공동 플랫폼 활용 등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보유 콘텐츠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메타버스 MICE' 시장을 확장하고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
- 또한 메타버스 기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MICE 업계를 주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방침으로, 메타버스 기반 체험형 공간을 구축하고 기술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용자가 함께 콘텐츠를 공유하는 초연결 메타버스를 구상하고 현실에 기반한 체감형 공간을 구축할 계획



[그림 14] 메타버스로 조성한 디노마드-갤럭시코퍼레이션 업무협약 현장

■ 서울: 서울 MICE 중기 발전계획 수립, 2030년까지 인프라 3.5배 확대 계획

- 서울시, '서울 MICE 중기 발전계획(2023-2027년)'을 11월 23일 발표하며 서울 MICE 인프라 확충, MICE 협력단지 조성, 디지털 혁신위원회 설치 등의 계획을 공개하였음
 - 해당 발전계획은 2022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년)'에서 강조한 4대 분야 중 하나인 '첨단 MICE 환경 구축' 부분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
- 우선 서울시는 민간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의 MICE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6만 5,000㎡ 규모에서 2030년까지 23만㎡ 수준까지 늘어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동남권(잠실-코엑스), 서남권(마곡-서울식물원), 도심권(서울역-광화문)에 3대 협력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
- 협력단지에는 전시컨벤션 시설과 문화산업, 쇼핑, 교통, 관광 등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주로 배치하며,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는 MICE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울 MICE 허브'를 조성할 계획
- 또한 '서울 MICE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설치, MICE 업계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IT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서울시가 구축한 온라인 MICE 행사 플랫폼인 '버추얼 서울 2.0'을 가상세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
- 또한 서울시는 MICE 행사의 범위를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국제 이벤트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MICE 행사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으로, 서울시 핵심사업과 관련이 있는 행사를 매달 1건씩 선정하여 국제회의·전시 등을 병행하는 융복합 MICE 행사로 육성해 나갈 전망
- 이외에도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SMA(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 활성화, 뉴욕,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할 계획



[그림 15]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감도

■ 인천: 코리아 미이스 엑스포 2022(KME 2022)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

- 국내 유일의 MICE 산업 전문 박람회인 ‘코리아 미이스 엑스포 2022’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인천관광공사 주관으로 11월 9-10일 양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음
 - 이번 KME의 주제는 ‘Meet the Change, Find the Chance’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한 시장 속에서 변화를 마주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찾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KME 전시장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의 지자체와 기업들의 부스가 다수 설치되었으며,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총 226개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해 394개의 부스를 운영
 - 서울은 SMA 회원사 29개사와 함께 참여한 단체관에서 가상 플랫폼 ‘버추얼 서울’ 홍보를 추진했으며, 경기와 전북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한 행사 소형화(스몰미팅) 추세에 맞춰 유니크메뉴 등 중소형 시설을 중심으로 한 ‘스몰 MICE’ 마케팅을 실시했고, 대구, 광주, 울산, 고양 등은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 및 단체 유치를 추진하였음
- 한편 행사장에는 총 20개국에서 300여 명의 바이어들이 방문하여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와 관련한 상담을 1,000건 이상 진행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바이어들은 ‘국내 여러 도시들의 미이스 시설 및 인프라 정보, 지원프로그램을 한번에 조사할 수 있어 국제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2022년 KME가 기존과 달랐던 점은 ESG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점으로, 한국관광공사 및 서울, 부산, 고양 등은 홍보부스를 재활용 소재만을 활용해 부스를 제작했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행사장 내 휴게공간에도 종이로 만든 테이블 및 의자를 배치하고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을 최소화하여 모두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폐기물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음



[그림 16] 코리아 미이스 엑스포 2022(KME 2022) 개막식



■ 부산: 부산관광공사, 인센티브 유치 행사 ‘2022 Meet in Busan’ 행사 개최

- 부산시-부산관광공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바이어를 직접 부산으로 초대하여 ‘2022 Meet in Busan’ 행사를 11월 24-25일 양일간 개최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완화되고 엔데믹 형태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성공적인 MICE 인센티브 행사 유치를 위해 진행하였으며, 이를 간 도시홍보영상 설명회 및 팸투어 등을 진행하였음
- 행사에 참석한 해외 바이어들은 부산의 대표적인 컨벤션센터인 벅스코를 비롯해 특급호텔 및 쇼핑센터 등이 들어서 있는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하는 한편 엑스더스카이, 범어사 등 부산의 주요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를 체험
- 또한 부산관광공사는 24일 도시홍보설명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MICE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부산 MICE 업계 관계자들과 바이어들이 따로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창출하여 업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이번 인센티브 유치 행사에 참여한 해외바이어들을 통해 약 1만 5,000명 상당의 대규모 인센티브 및 국제회의 수요를 발굴, 최종 유치 결정까지 지속적인 전략을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 글로벌 인센티브 및 국제회의 행사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



[그림 17] Meet in Busan 행사 기념 사진

■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승인신청서 문체부에 제출**

- 경주시, 국제 MICE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보문단지 내 150만㎡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으로, 문체부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
- 경주시는 2021년 12월부터 공공기관 2곳은 물론 지역 내 호텔, 리조트, 경주월드 등 각종 집적시설 12개소와 함께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 협의체’를 결성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음
- 특히 경주시는 협의체와 함께 컨벤션시설 증축, 숙박시설·판매시설·공연장 등 집적시설 설치, 최근 국제음향학회 등 연속적인 성공적 개최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실적을 쌓아왔으며, 따라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
-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될 경우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용적률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영업제한 규제 제외 등 관광특구 수준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
 - 국제회의 복합지구 승인 여부는 올 연말 즈음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경주시 이외에도 현재 수원시가 광고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공모 사업에 신청한 바 있음



[그림 18] 경주 보문단지 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경

■ 광주: 광주관광재단, 광주 MICE 앰버서더 4기 위촉

- 광주관광재단, 11월 30일 광주첨단라운지 OIC에서 인문·사회·의학 등 각 학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30여명을 광주 MICE 앰버서더로 위촉하는 위촉식 진행
- 광주관광재단이 선정하는 광주 MICE 앰버서더는 광주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기여한 인사, 국내 학회 및 협회의 임원이자 국제기구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사, 국제회의 유치 정보를 광주에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번에 선정된 광주 MICE 앰버서더는 에너지공학·신소재공학·식품공학 등 각종 공학 분야, 의료로봇·순환기내과·핵의학과 등 의료 분야, 그 외 사회학, 모빌리티, 지질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2023년 1월 1일 대사로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간 앰버서더로서 활동할 예정
- 이번 출범식에서 광주 MICE 앰버서더들과 지역 내 주요 회의시설 및 호텔 관계자, 광주관광재단 간의 네트워킹 시간이 주어졌으며, 광주관광재단은 지역 내 MICE 자원 및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 한편 광주관광재단은 그간 MICE 앰버서더들과 함께 2021 세계영상치의학회(ICDMFR), 2021 세계하천호수습지학술대회(SIL) 등 2017년부터 다양한 국제회의를 광주로 유치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지역 간 MICE 유치 경쟁이 강화되는 만큼 해당 앰버서더들과 협업을 통해 관련 산업전시회 및 학술행사 유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그림 19] 광주 MICE 앰버서더 4기 위촉식 현장 사진